

나주도 뚫렸다... AI 전남 전역 번지나 '불안'

공산면 씨오리 바이러스 검출... 오리 2만5000마리 살처분 새끼오리 분양 관련 42개 농가 추적 조사 등 방역 초비상

국내 최대 오리 사육지인 나주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서 전남도 내 전체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해남, 무안 등 전남 서부권에 이어 강진, 나주 등 중부권까지 AI가 휩쓸면서 피해도 눈덩이처럼 증가할 전망이다. 전남도는 도내 오리농가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잇따른 의심축 발생과 인력 부족 등으로 시한이 계속 연장되고 있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8일 산란율이 떨어진다든 의심 신고가 접수된 나주시 공산면 씨오리에 대한 시료 검사 결과 H5

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현장 간이검사에서는 음성으로 판정된 바 있다. 전남도는 이 농장에서 키우는 오리 2만5000마리를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하고 새끼 오리 분양 등 역학적으로 관련 있는 42 농가를 추적 조사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H5N6형 바이러스인지, 고병원성 AI 확진 여부 등을 검사 의뢰할 방침으로, 결과는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께 나올 예정이다.

발생 농장은 135 농가가 속해 있는 계열회사 소속으로, 지난 2014년 3월에도 AI가 발생한 바 있다. 중점방역관리지구에 포함돼 일제검사 대상이었지만, 해남, 무안 등

의 AI 발생 농장, 강진만 인근 10km 일제 검사에 행정력이 우선 투입되면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전남도는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한 일제검사를 30일까지 하기로 했다가 이를 이번 주말까지 연기했다.

사전조사에서 AI를 검출하지 못하고 각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AI가 발생하면서 살처분에 따른 피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전남에서 해남 4농가 4만 마리, 무안 2농가 3만4000마리 등 6농가의 7만4000마리가 살처분됐다.

나주 농장 반경 500m 내에는 닭·오리 농가가 없지만, 3km 내에는 7농가에서 79만 마리(닭 78만 마리, 오리 1만 마리), 3~10km에는 75농가에서 284만 마리(닭 227만 마리, 오리 57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전남도는 일단 10km 내 닭·오리 이동을 제한하고 해남, 무안, 강진에 이어 일제 정밀검사에 들어갔다. 또 나주에 이어 두 번째 오리 사육지인 영암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해 주요 도로에 방역 초소를 설치했다. 나주와 영암의 오리 사육량은 전국 46~50%에 달한다.

2011년부터 전남 AI 발생 현황을 보면 2011년 23건 가운데 영암 9건·나주 8건, 2014년 68건 가운데 영암 27건·나주 20건, 지난해 39건 가운데 영암 15건·나주 10건이었다. 2012~2013년에는 도내 발생 사례가 없었다.

현재 전남 해남, 무안 등 전국적으로 5개도 32곳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나주 등 9곳은 의심축 신고가 접수된 상태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우치동물원도 초비상 AI 방역체계 돌입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하면서 천연기념물 등 조류 수백마리가 살고 있는 광주 우치동물원에도 비상이 걸렸다.

27일 우치동물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해남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확인된 직후부터 비상방역체계에 돌입했다.

우치동물원 큰물새장, 평사, 열대조류관, 맹금류사, 해양조류사 등 5개사에는 조류 55종 468마리가 살고 있다. 검목수리, 수리부엉이, 원앙 등 천연기념물 3종 22마리와 멸종위기종 20종 67마리도 포함돼 있다. 특히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온 수컷 관학 1마리는 전 세계적으로도 보기 힘든 희귀종이다.

동물원은 지난 18일 해남과 충북 음성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이후 1주일여 1차례 실시하던 동물원 내 전체 분부 방역소독을 2일 1차례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또 매일 두 차례 조류들의 임상 증상과 질병 여부를 살피고 있다.

관람객 출입도 및 조류사 입구에 발판소독조를 설치·운영 중이다. 동물원 입구 도로변에는 차량전용소독기를 설치해 동물원 내 출입차량을 모두 소독하고 있다. 동물사료, 분뇨차량도 '소독 필증' 자정시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29일 광주시 북구 우치동물원 수의사들이 큰물새장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우치동물원에는 천연기념물 등 조류 55종 468마리가 살고 있다. <우치동물원 제공>

에만 출입이 가능하다. 현재 우치동물원 반경 3km 내에는 8개 농가에서 닭과 오리 415마리를 사육 중이며, 영산강 지역 철새도래지 1곳이 있는 것

으로 파악됐다. 반경 3~10km 내에는 140농가에서 7만2961마리의 닭·오리를 사육하고 있다. 김정남 우치동물원 소장은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AI 경계 단계가 발령된 만큼 동물원 조류의 감염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남기자 kki@kwangju.co.kr

김 양식장 불법무기산 다음달부터 특별단속

완도해양경비안전서는 본격적인 김 생산 시기를 겨냥해 김 양식장을 대상으로 불법 공업용 무기산 유통 및 사용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완도해경은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면허지 이탈 및 무면허 김 양식 행위 ▲무기산 불법 제조 및 판매 ▲제조품에 대한 중·도매인 등 불법 유통 ▲김 양식장 내 무기산 불법 사용 및 폐유기 해상투기 ▲사육목적 무기산 등 보관·운반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 김 양식 시설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 적극적인 계도 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 및 해양환경 보존을 위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한센인 174명에 2000만원씩 국가 배상 판결

2심서 위자료 동등 지급

서울고법 민사28부(박정화 부장판사)는 29일 강소 등 한센인 17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각 2000만원을 지급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로부터 강제낙태나 정관수술을 당한 한센인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1심처럼 인정했지만 배상액은 다소 조정했다. 지난해 5월 선고된 1심은 단종(정관수술) 피해자에게는 3000만원씩, 낙태 피해자에게는 4000만원씩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한센인들의 국가 배상 소송은 서울고법이 지난 9월 선고한 같은 소송에서 남녀 동등하게 200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 내린 이후 배상액이 2000만원으로 굳어지는 추세다. /연협뉴스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 6만원으로 늘려

경찰청, 오늘부터 시행

앞으로 차량에 탄 어린이에게 안전띠(카시트)를 착용시키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종전의 2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

쪽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1종 보통면허를 따서 승합차를 몰 수 있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30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에게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지 않거나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카시트를 착용시키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6만원을 부과한다. 종전 과태료는 3만원이었다.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1종 보통면허 취득이 가능해진다. 이전까지는 한쪽 눈이 보이지 않으면 2종 보통면허만 딸 수 있었다. /연협뉴스

광주시교육청이 분석한 국정교과서

“왜곡·편향에 가독성 떨어지고 흥미 반감

이런 걸로 어떻게 학생 가르치나”

5·18 계엄군 폭력진압과 대학생 시위 앞뒤 관계 바뀌 왜곡 광주학생독립운동도 서술 오류

“편향된 내용 뿐 아니라 가독성도 떨어지고 학생들의 역사에 대한 흥미를 반감시킨다.”

28일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공개를 강행한 국정 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접한 광주지역 역사교사들 사이에서는 긴 탄식이 터져나왔다. 오류, 왜곡·축소한 내용에 더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서술 방식, 사실을 지나치게 나열하면서 엄청난 학습 부담을 안겨줄 수 밖에 없다는 반응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런 걸로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나”는 실망감도 컸다.

광주시교육청은 이같은 의견을 수렴, 29일 현장 검토본에 대한 1차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교사들은 ▲5·18 민주화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 ▲호남 의병 활동 누락 ▲여수·순천 10·19 사건 관련 서술을 우선적으로 분석했다.

5·18 민주화운동의 경우 ‘5월 18일 광주에서 전남대생들의 주도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다. 신군부는 계엄군을 광주에 투입하여 과잉 진압하였다’고 기술, 계엄군의 폭력 진압과 대학

생 시위의 앞뒤 관계를 바꿔 서술해 왜곡했다는 게 교사들 판단이다. 계엄군 진압 장면 대신, 서울역 시위장면(1980년 5월 15일),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물, 광주 시위장면 등 지극히 평범한 내용을 다루면서 ‘국가 폭력’의 잔혹성을 숨겼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광주학생독립운동과 관련, ‘학생 비밀 결사인 선진회 등 광주지역 학생운동을 접한 광주지역 역사교사들 사이에서는 긴 탄식이 터져나왔다. 오류, 왜곡·축소한 내용에 더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서술 방식, 사실을 지나치게 나열하면서 엄청난 학습 부담을 안겨줄 수 밖에 없다는 반응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런 걸로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나”는 실망감도 컸다.

광주시교육청은 이같은 의견을 수렴, 29일 현장 검토본에 대한 1차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교사들은 ▲5·18 민주화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 ▲호남 의병 활동 누락 ▲여수·순천 10·19 사건 관련 서술을 우선적으로 분석했다.

5·18 민주화운동의 경우 ‘5월 18일 광주에서 전남대생들의 주도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다. 신군부는 계엄군을 광주에 투입하여 과잉 진압하였다’고 기술, 계엄군의 폭력 진압과 대학

생 시위의 앞뒤 관계를 바꿔 서술해 왜곡했다는 게 교사들 판단이다. 계엄군 진압 장면 대신, 서울역 시위장면(1980년 5월 15일),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물, 광주 시위장면 등 지극히 평범한 내용을 다루면서 ‘국가 폭력’의 잔혹성을 숨겼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광주학생독립운동과 관련, ‘학생 비밀 결사인 선진회 등 광주지역 학생운동을 접한 광주지역 역사교사들 사이에서는 긴 탄식이 터져나왔다. 오류, 왜곡·축소한 내용에 더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서술 방식, 사실을 지나치게 나열하면서 엄청난 학습 부담을 안겨줄 수 밖에 없다는 반응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런 걸로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나”는 실망감도 컸다.

광주시교육청은 이같은 의견을 수렴, 29일 현장 검토본에 대한 1차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교사들은 ▲5·18 민주화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 ▲호남 의병 활동 누락 ▲여수·순천 10·19 사건 관련 서술을 우선적으로 분석했다.

5·18 민주화운동의 경우 ‘5월 18일 광주에서 전남대생들의 주도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다. 신군부는 계엄군을 광주에 투입하여 과잉 진압하였다’고 기술, 계엄군의 폭력 진압과 대학

생 시위의 앞뒤 관계를 바꿔 서술해 왜곡했다는 게 교사들 판단이다. 계엄군 진압 장면 대신, 서울역 시위장면(1980년 5월 15일),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물, 광주 시위장면 등 지극히 평범한 내용을 다루면서 ‘국가 폭력’의 잔혹성을 숨겼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광주학생독립운동과 관련, ‘학생 비밀 결사인 선진회 등 광주지역 학생운동을 접한 광주지역 역사교사들 사이에서는 긴 탄식이 터져나왔다. 오류, 왜곡·축소한 내용에 더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서술 방식, 사실을 지나치게 나열하면서 엄청난 학습 부담을 안겨줄 수 밖에 없다는 반응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런 걸로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나”는 실망감도 컸다.

광주시교육청은 이같은 의견을 수렴, 29일 현장 검토본에 대한 1차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교사들은 ▲5·18 민주화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 ▲호남 의병 활동 누락 ▲여수·순천 10·19 사건 관련 서술을 우선적으로 분석했다.

5·18 민주화운동의 경우 ‘5월 18일 광주에서 전남대생들의 주도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다. 신군부는 계엄군을 광주에 투입하여 과잉 진압하였다’고 기술, 계엄군의 폭력 진압과 대학

생 시위의 앞뒤 관계를 바꿔 서술해 왜곡했다는 게 교사들 판단이다. 계엄군 진압 장면 대신, 서울역 시위장면(1980년 5월 15일),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물, 광주 시위장면 등 지극히 평범한 내용을 다루면서 ‘국가 폭력’의 잔혹성을 숨겼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광주학생독립운동과 관련, ‘학생 비밀 결사인 선진회 등 광주지역 학생운동을 접한 광주지역 역사교사들 사이에서는 긴 탄식이 터져나왔다. 오류, 왜곡·축소한 내용에 더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서술 방식, 사실을 지나치게 나열하면서 엄청난 학습 부담을 안겨줄 수 밖에 없다는 반응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런 걸로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나”는 실망감도 컸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사건번호	물건 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액 [단위: 원]	비고
2016타경 1231	1	북구 임방울대로 1041번길 15, 106동 20층 2102호 [신용동, 용두주공아파트] 59.99㎡ [특지방도등기없음]	아파트	136,000,000	2016타경 15189(중복)
2016타경 12944	1	관산구 광범들로 132번길22, 209동 4층 401호 [순연동, 수원2차우미리아파트] 84.9626㎡	아파트	302,000,000	
2016타경 13992	1	북구 유암동 329 반석빌라 101동 4층 408호 31.77㎡	아파트	74,000,000	
2016타경 14193	1	동구 남문로693길11, 204동 10층 1001호 [학동, 학2마을아파트] 108.97㎡	아파트	385,000,000	
2016타경 1493	1	관산구 수동로267, 105동 9층 905호 [신창동, 신기부영아파트] 84.9873㎡	아파트	198,000,000	
2016타경 14643	1	북구 서양대로199, 103동 10층 1103호 145.35㎡	아파트	269,000,000	
2016타경 63850	1	동구 남문로693길11, 204동 10층 1001호 [학동, 학2마을아파트] 108.97㎡	아파트	385,000,000	
2016타경 13350	1	서구 문천로162번길43, 102동 5층 501호 45.28㎡	다세대	199,000,000	전통다락방매각포
2016타경 12586	1	화순군 북면 송당리 81 876㎡	전	9,636,000	농지지적취득증명

사건번호	물건 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액 [단위: 원]	비고
2016타경 12586	2	동소 산54 15689㎡	임야	21,153,150	맹지, 현황차면적 21,153,150
2016타경 13992	1	나주시 문평면 학교리 257 1610㎡ [나회주지부 1/2전부, 농지자격취득증명요]	전	4,105,500	공유지대수입매수권 행사제한, 맹지
2016타경 14193	2	동소 산107-6 99㎡	임야	861,300	현황전
2016타경 14193	3	화순군 동백면 연월리 산195-2 11504㎡	임야	46,016,000	맹지
2016타경 14193	4	동소 산195-7 81679㎡ [분묘및이동가능한한]	임야	563,585,100	수목매각제외, 현황차면적 563,585,100
2016타경 14124	1	관산구 옥동 1233-7 1652.6㎡	광장용지	1,101,810,64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모함, 일부외 계기구소재물량
2016타경 14193	3	동소 442-5 3946㎡ 제시외 화장실 등 176.62㎡, 수목 1식	종교용지	289,855,200	제시외건물및수목매각제외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임양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하여야 하는 최고면적수신인인 매각물건이외에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가할 때에는 매수신청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해당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합형일 변경으로 인한 환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면적이 이를 부담할 수 있음.
 ② 농지임양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하여야 하는 최고면적수신인인 매각물건이외에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가할 때에는 매수신청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해당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합형일 변경으로 인한 환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면적이 이를 부담할 수 있음.
 ③ 농지임양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하여야 하는 최고면적수신인인 매각물건이외에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가할 때에는 매수신청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해당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합형일 변경으로 인한 환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면적이 이를 부담할 수 있음.
 ④ 매각물건이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 매수신청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해당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합형일 변경으로 인한 환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면적이 이를 부담할 수 있음.
 ⑤ 매각물건이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 매수신청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해당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합형일 변경으로 인한 환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면적이 이를 부담할 수 있음.
 ⑥ 매각물건이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 매수신청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해당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합형일 변경으로 인한 환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면적이 이를 부담할 수 있음.
 ⑦ 매각물건이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 매수신청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해당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합형일 변경으로 인한 환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면적이 이를 부담할 수 있음.
 ⑧ 매각물건이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 매수신청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해당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합형일 변경으로 인한 환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면적이 이를 부담할 수 있음.
 ⑨ 매각물건이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 매수신청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해당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합형일 변경으로 인한 환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면적이 이를 부담할 수 있음.
 ⑩ 매각물건이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 매수신청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해당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합형일 변경으로 인한 환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면적이 이를 부담할 수 있음.
 2. 매각기일 : 2016. 12. 15(목) 10:00

2. 매각물건기일 : 2016. 12. 22. (목) 10:00
 3.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1층법정
 4. 입찰방법 : 미지정
 5. 입찰보증금 : 미지정
 6.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7.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8.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9.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0.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1.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2.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3.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4.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5.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6.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7.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8.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9.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20.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21.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22.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23.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24.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25.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26.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27.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28.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29.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30.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31.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32.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33.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34.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35.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36.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37.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38.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39.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40.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41.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42.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43.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44.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45.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46.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47.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48.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49.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50.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51.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52.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53.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54.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55.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56.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57.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58.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59.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60.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61.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62.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63.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64.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65.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66.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67.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68.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69.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70.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71.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72.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73.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74.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75.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76.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77.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78.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79.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80.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81.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82.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83.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84.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85.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86.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87.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88.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89.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90.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91.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92.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93.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94.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95.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96.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97.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98.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99.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00.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01.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02.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03.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04.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05.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06.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07.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08.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09.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10.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11.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12.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13.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14.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15.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16.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17.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18.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19.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20.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21.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22.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23.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24.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25.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26.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27.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28.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29.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30.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31.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32.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33.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34.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35.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36.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37.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38.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39.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40.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41.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42.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43.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44.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45.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46.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47.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48.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49.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50.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51.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52.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53.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54.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55.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56.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57.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58.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59.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60.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61.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62.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63.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64.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65.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66.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67.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68.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69.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70.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71.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72.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73.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74.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75.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76.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77.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78.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79.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80.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81.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82.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83.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84.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85.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86.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87.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88.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89.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90.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91.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92. 입찰보증금 반환 : 미지정
 193